

순천 드라마촬영장 인기

추억 되감으며 향수 되살려봐

영화·드라마 촬영 잇따르며
관객 늘고 올 수입 5억 돌파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 추진
불거려 많아 도심 대표 관광지로

최수종·손태영 주연의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불꽃 속으로', 이민호·김래원 주연의 '강남블루스', 하정우·하지원 주연의 영화 '허삼관 매월기'의 공통점이 있다. 순천 드라마촬영장에서 촬영을 했다는 점이다. 최근 순천 드라마촬영장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관람객은 4%가량 증가했고, 관람 수입액도 5억원을 돌파했다. 드라마·영화관계자의 촬영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달동네 풍경속 옛 추억을 만끽=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의 인기 비결은 1960~197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조례동 야산 언덕바지 자연 경관을 살려 만들어졌다. 지난 1960년대 순천읍내와 서울 달동네, 태백 탄광촌 등이 그대로 재현됐다.

올 10월 현재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은 29만 4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2826명) 대비 4% 증가했다. 또 관람 수입액도 5억100만원으로 지난해 3억70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 늘었다. 순천 드라마촬영장에서는 그동안 SBS '사랑과 야망', MBC '에덴의 동쪽', '님은 먼 곳에',



SBS '자이언트', MBC '누나의 3월', KBS '제빵왕 김탁구', KBS '복희누나', MBC '빛과 그림자' 등의 드라마가 촬영됐다. 또 SBS '런닝맨'과 영화 '늑대소년', '피끓는 청춘', '인간중독' 등도 이곳에서 아련한 추억 속한 장면을 담았다. 이에 순천시는 드라마 촬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만 관람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다목적 문화공간 구성,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공간



으로 만들고 있다. 또 추억의 체험거리, 먹을거리, 놀이체험 등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장을 순천만 정원과 '봉화산 둘레길', 낙안읍성 등 뛰어난 순천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순천시는

최근 순천 드라마촬영장에서 촬영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허삼관매월기'(감독 하정우)의 한 장면. 세트장내 우체통과 낡은 자전거(아래).

드라마 촬영장내 낡은 시설을 손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도비 및 시비 16억여원을 투입해 드라마 촬영장 내·외부 공간에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순천시는 공사기간 동안 드라마 촬영장 일부 구간이 폐쇄됨에 따라 드라마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존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또 1960~1970년대, 그때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추억의 거리'와 추억의 먹을거리,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골목길에서의 추억놀이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시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12년 23만명, 2013년 33만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 온 느낌으로 추억과 향수를 체험하는 도심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관람객 300만명 돌파

'순천만 정원'이 개장 196일 만에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20일 개장한 순천만 정원에 1일 평균 1만6000명, 주말 평균 3만1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개장 196일 만인 지난 2일까지 누적관객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순천만 정원'에는 개장한 지 157일 만인 지난 9월 23일 200만명을 돌파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의 80% 이상이 외지 관람객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기관이나 단체로 방문하는 사례보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 관람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장작 화로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이글루를 조성해 겨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 현판식

청암대 5년간 150여억 국비지원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는 최근 청암관 현판에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30개교 등 총 45개교를 산업현장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청암대 등 3개 대학만이 선정됐다.

청암대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으로 '산·학 밀착형 간호보건복지 분야 융·복합형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이라는 핵심가치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직업 인력양성'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5년간 150억~17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학생교육과 학교발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암대는 지난 7월에 사업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현재 1차년도 사업비 32억26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중에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교도소 여성수형자 도배 봉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 여성수형자 도배 직업훈련생들이 최근 독거 장애인의 노후된 벽지를 교체하고 주변 정소를 해주는 '교정시설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교정시설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재능과 생산물 및 수용생활에서 발생한 재활용 재료로 리폼(re-form)한 물품을 사회취약 계층에 나눠 주기 위한 사업이다. 순천교도소는 지난 2011년 10월 '교정시설 사랑나눔' 봉사단을 만들어 노인전문요양병원인 '은빛마을'과 '독거노인 집'의 낡은 벽지를 교체해 주는 등 현재까지 매년 2차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영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강모(여·30)씨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형일 소장은 "'교정시설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얻은 기능을 현장 실습하는 좋은 기회이자 심성순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는 듯 1960~1970년대 추억의 풍경속으로 관람객을 이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탈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외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시 온탕 소독기외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직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늘정원과 맨 꼭대기층의 옥상하늘정원 무인택배시스템
구. 순천만정원관리회장이 1km내에 위치(순천만 정원 조망권) - 휘트니스센터

1599-1129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29㎡ 33㎡ 35㎡ 52㎡

방문고객 사은품증정

M/H 홈플러스 풍덕점 주차장 뒷편